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교 폭력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정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 병 훈

2006년 8월 일

학교 폭력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정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병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학교폭력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

이 병 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학교 폭력에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및 지도 교수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 조사와 통계 자료 분석에 의존한 양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주도 내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개 학교를 선정, 900명을 무선 표집 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무선 표집 된 900명 학생에게 2005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배포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55부를 제외하고 845부를 최종 유효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다.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1)학교 동료(친구)간의 폭력경험, 2)폭력을 당한 경우에 학생이 취한 행동, 3)선생님이 가하는 체벌에 대한 인식도, 4)제주도의 폭력 실태와 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고 하위 항목을 각 영역별로 5~1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를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폭력 경험을 한 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다.

둘째, 선생님이 가하는 체벌에 대해선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이며 바른 길로 인도

하기 위협이라는 인식이 많다.

셋째, 제주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선 아직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넷째, 학생들은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서라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범시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경찰, 지역사회의 학교 폭력 신고 센터 마련 등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문제는 어른들의 시각과 판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들의 시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지름길임을 증명하고 있다.

위의 결론에서 나타났듯이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학교 폭력에 관한 한 청정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헐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청정 지역이 오래 유지 될 수 있도록 학교, 사회, 교사, 학부모,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학교 폭력의 개념 및 유형	4
2. 학교 폭력의 특성	11
3. 학교 폭력의 발생원인	11
4. 선행 연구 고찰	18
III. 연구 방법	21
1. 연구 대상	21
2. 연구 도구	21
3. 연구 절차	21
4. 자료의 처리	22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3
1. 학생들과 학교동료(친구)의 폭력	23
2.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에 학생이 취한 행동	36
3.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39
4. 제주도내 학교 폭력의 현황	55
V. 요약 및 결론	57
1. 요약	57
2. 결론	61
참고문헌	62
< Abstract >	
< 부 록 >	

〈표 차 례〉

<표 III-1> 연구 대상자	21
<표 IV-1>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24
<표 IV-2> 상처를 입은 경험	25
<표 IV-3> 흥기로 위협을 당한 경험	26
<표 IV-4>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	27
<표 IV-5> 성적 놀림을 당한 경험	28
<표 IV-6>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29
<표 IV-7> 숙제를 대신하거나 부탁을 강요당한 경험	30
<표 IV-8>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강요당한 경험	31
<표 IV-9>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	32
<표 IV-10> 돈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한 경험	33
<표 IV-11>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상	34
<표 IV-12> 자신과 폭력을 행사한 사람과의 관계	35
<표 IV-13> 피해를 당할 때 취한 행동	37
<표 IV-14>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	38
<표 IV-15>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	39
<표 IV-16> 교사가 행한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과실 인식	40
<표 IV-17>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호응도	41
<표 IV-18>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 및 반항심	43
<표 IV-19>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등교 거부	44
<표 IV-20> 교사 체벌에 대한 담당과목의 선호 여부	46
<표 IV-21> 교사 체벌이외의 대체 수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47
<표 IV-22>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49
<표 IV-23>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	50
<표 IV-24>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수용 여부	52
<표 IV-25>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처신	53
<표 IV-26> 제주도 학교 폭력 문제의 정도	5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한 사회 변화와 청소년기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하여 현재 학교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진교진, 1999). 이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다. 스텐리 홀(S. Hall)이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질풍과 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의 정서는 우발적이고 과격하게 나타나 자신도 모르게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드(Id)’가 강하게 작용하여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실례로 얼마 전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동영상은 인터넷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더구나 그 동영상이 수업 시간에 촬영된 것이기에 충격은 더하였고 급기야 교장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장난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일 년 동안의 폭행으로 인해 온 몸에 멍이 들고 귀, 손, 팔 등 눈에 쉽게 띄는 신체 부위에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런 데도 학교 측에서는 그저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미온적인 반

응을 보여 당사자의 부모는 물론 사건을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하였다(이명자, 2004).

이경자(1998)에 의하면, 과거의 학교 폭력은 학생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청소년기의 치기에서 비롯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폭력은 그 동안 교내 문제로 학사적 차원에서 수습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 폭력 형태는 날이 갈수록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및 저 연령화 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 대상을 골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소위 일본의 '이지매성 폭력'이 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놀림뿐만 아니라 시험 때 답안지 보여주기를 강요하고 숙제나 심부름시키기 등,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약한 상대를 골라 폭력을 휘두르며 상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고통에 울면서도 가만히 참고 있는가 하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다. 심지어 극도의 불안감으로 정신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자살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 폭력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근본 문제는 폭력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건 간에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평생에 걸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함으로써 미래의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며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폭력에 관련된 원인들을 분석하여 학교 폭력

의 예방과 근절의 대책수립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효과 있는 학교 폭력 대응책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폭력에 관련된 원인들을 분석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의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 및 대응방법은 어떠한가?

셋째,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학교 폭력의 증가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 학교 폭력의 개념

폭력이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내적, 외적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언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폭력의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과 재산 파괴의 일부를 말하며 심리학적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주려는 의도를 말한다. 폭력은 다른 사람에 대해 상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력을 뜻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과 권력의 부당한 사용 역시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폭력에는 단순한 물리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피해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 폭력이란 폭력이 학교라는 공간적 개념과 결합되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용어들이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교내 폭력, 학교 주변 폭력, 학원 폭력, 학생 폭력, 청소년 폭력 등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개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홍금자(2004)와 이경준(2004)은 학교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발생 장소가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이 의식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의 범위를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위반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명자, 2004).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은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가해 행동을 말한다. 고의적 괴롭힘이나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이나 헐박과 욕설, 신체적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록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엄연한 폭력 행위가 된다. 대개 이러한 폭력 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학교 폭력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타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구타를 하거나 힘껏 밀어 부치는 행위
-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거나 제외시키는 행위
-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위
- 언어적으로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헐박하는 행위

-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 욕설이나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방에게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하는 문제 행동’으로 정의한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2002).

나. 학교 폭력의 유형



이명자(2004)는 학교 폭력의 유형을 괴롭힘,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괴롭힘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상황은 크게 보아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는 심리적·물리적 억압이나 강제를 통한 지배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경우(또는 증오적 폭력)와 다른 하나는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구적 폭력)이다. 앞에서의 유형이 바로 ‘괴롭힘’을 의미한다. 소위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매’ 현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괴롭힘과 이지매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 ‘이지매’란 특히

“지속적인 집단적 괴롭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편 괴롭힘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으로 숙제시키기, 심부름시키기, 가방 들어주기, 불량 서클이나 폭력 조직 가입 강요 등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심리적 폭력

심리적 폭력은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나 감정 등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의 사용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학교 내 심리적 폭력은 따돌림, 놀림, 조롱, 비웃음, 성적 놀림 등으로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장애아를 주위동료들이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약점을 지칭하며 놀림대상으로 할 때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반응과 영향을 말한다.



(3) 언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은 심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저속한 언어나 감정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사용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학교 내 언어적 폭력은 위협, 협박, 욕설, 공연한 시비 등에 관련된 행위로써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태이며, 신체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언어를 통한 공갈협박과 또는 사소한 일에도 잦은 시비를 걸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금품갈취

금품갈취는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불법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는 금품갈취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폭력 범죄의 주요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학교 내 금품갈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위협하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로서 주로 폭력서클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이 미 가입 학생 중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5) 신체적 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법적으로 '폭력'에 해당한다. '폭력'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폭행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대개의 경우는 집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신체적 에너지와 반항적인 심리작용 또는 자아 정체意識의 결여 내지는 집단에의 소속감을 맛보려는 욕구 등에서 나타난다.

학교 내 신체적 폭력은 학생 가해자의 물리적 행위에 의해 때리기, 구타, 상해, 패싸움, 기물 파괴, 흉기 소지 및 흉기를 사용한 위협적 행위를 말한다.

(6) 성폭력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 범

죄로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여학생들의 성적 발달을 저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희롱까지 포함시킨 유형으로 특히 여학생의 입장에서 본 폭력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 폭력의 특성

청소년기는 새로운 것의 적응이 요구되는 불안의 시기이며, 급격한 성장은 신체적 변화에의 적응과 성인기로의 생활 확대에 따른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이 시기는 의존과 독립이라는 갈등에 따라 반항, 외로움, 영웅심 등 심한 감정변화로 자신의 의지와 사고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청소년기라는 불안정한 상황을 잘 극복하면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좌절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결국 정당하지 못한 문제 해결 방법인 반사회적 폭력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진교진 1999).

정체의식의 혼란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형태로 표출되는 청소년 폭력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나날이 다양화, 심각화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특징으로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 가운데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청소년 폭력은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셋째, 청소년 폭력 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있다. 넷째, 폭력의 가해자는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피해 학생의 경우 그 사실을 부모나 선생님에게 잘 알리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안영숙, 2004).

이와 같은 청소년 폭력의 특성 중에서 폭력발생 빈도가 많은 학교 폭력으

로 범위를 제한하여 본다. 2002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남자 중, 고등학교의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여학생 사이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몇몇 언론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초, 중, 고생 10명중 5-6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청소년 폭력도 심각한 문제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에 의한 교내 폭력도 심각한 실정인 것이다(안영숙, 2004).

이용교(1994)가 지적한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으로 이들이 같은 생활공간에서 살고 있고, 일부 청소년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폭력의 특성, 청소년 폭력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청소년 폭력의 질적 특성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진교진, 1999).

먼저 폭력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첫째, 청소년기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충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권력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남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즐기며, 주변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고 폭력행동에 이익의 요소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대부분 다른 비행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비행하위집단에 소속되어 동료들과 함께 폭력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폭력의 피해자들의 특성을 보면,

첫째,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며 누구든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라는 환경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여 폭력에 대한 공포심이 유발된다 할 수 있다.

둘째, 교내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한 이후에 분노와 적개심을 보인다. 그리하여 가해학생과 학교에 대한 공포심이나 회피적 태도를 보이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악몽에 시달리거나 우울 증세를 보이며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있다.

셋째, 이러한 학교 폭력의 공포 속에서 피해자들은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어 인생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폭력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폭력이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범위 단계에 이르고 있다.

둘째,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셋째, 폭력행위가 비행청소년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모든 청소년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화된 비행 유행이 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 폭력이 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청소년 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섯째, 여학생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일곱째, 일반적인 폭력과 금품갈취 이외에도 집단적인 따돌림과 놀림, 시험지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숙제나 심부름시키기 등의 새로운 형태의 심리 폭력이 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일회성 단순폭력보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소위 학대적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폭력의 질적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의 저연령화, 즉 비행에 있어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비행의 지능화, 즉 비행을 함에 있어 고도로 지능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비행의 흉포화 즉 비행이 잔인하고 과감하며 포악해지고 있다.

넷째, 비행의 집단화, 즉 비행에 있어 또래 집단끼리 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크다.

다섯째, 비행의 중류화, 즉 비행이 예전에는 결손가정 또는 저소득층에서 많았으나 지금은 중상류층 심지어 유명인사들 자녀계층 출신에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섯째, 비행의 단순화, 즉 작은 일에도 이해와 타협보다 행동이 먼저 가해진다는 것이다(진교진, 1999).

3. 학교 폭력의 발생원인

학교 폭력은 그 정도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오늘날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원인은 분석자의 접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개인·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교육 환경 요인, 사회적 요인, 또래집단 요인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개인 · 심리적 요인

폭력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 심리적 특성은 공격적 성격장애이다. 사람은 누구나 폭력 행동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자기 통제력에 강하게 작용하여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이 작동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정서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서불안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생활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거듭되어 가정,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상실이 생기는 것으로 국내 · 외 많은 학자들이 정서 불안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본다.

정서불안은 정서장애로 이어져 반항적, 충동적, 파괴적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열등감, 적개심이 강하다. 이러한 심리적 발달은 폭력행위를 가중시킨다. 또한 이 학생들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지적 판단력이나 표현력도 부족하여 폭력을 휘두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학생들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자기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약한 존재로 규정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간다. 이들은 아주 작은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도하지도 않고 쉽게 폭력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다.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공격 행동과 폭력 행동으로 이어진다. 공격 행동은 우선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억제, 통제 및 금지가 형성되지 못한 데 있다. 자기 억제와 공격 행동은 분리될 수 없는 심리 작용이다. 공격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권위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성취동기가 결핍되어 있다. 또한 분개를 잘하고 적대적이고 파괴적이며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데 손상된 자아 개념, 부적절성, 정서적 거부, 그리고 자기표현의 욕구 결핍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공격 행동에는 열등감의 성격 특성이 나타나는데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외벌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내벌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좌절된 상황에서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보다 공격적이라는 것이다.

공격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을 요약하면 ① 자아 기능의 약화, ② 욕구 불만의 누적, ③ 문제 해결 능력 부족, ④ 지각의 비현실성, ⑤ 동기 유발의 결여, ⑥ 목적의식 결핍, ⑦ 발달과 부조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 가정적 요인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집단으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이나 언어 발달, 지능 발달, 인성, 사회성 발달, 생활 예절과 기본습관의 형성 그리고 교육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현대 가정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것은 가정 본래의 고유기능이 가정 밖의 타 기관으로 이양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정은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에서 수행하던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행이나 일탈, 공격성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떠한 가정에서 사회화과정을 밟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 요인이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가정은 기초집단으로 인간의 지능, 성격, 신체, 정서 형성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가정이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될 때 자녀들의 가치혼란과 주체성의 상실은 크다.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나 가정과 학교가 출세주의 적 교육관에 사로잡혀 참다운 인간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들은 부모와의 갈등, 부모사이의 불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부족,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인 요구 등으로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커진다고 했으며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고 싶고 자기의 능력과 취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싶은 소망을 간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가정 내 폭력 등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이 방치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1)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과거에는 대가족 생활을 통해 자녀들의 교육, 생산, 여가, 양육, 이성, 인간관계 등의 모든 기능 수행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 졌다. 즉 가정은

작업장인 동시에 생활의 장이며 교육의 장으로써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지능적, 성격적 발달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고 그 기능 또한 변화됨으로써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는 대인 관계에서의 양보심, 협동심 등의 학습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가족중심의 이기주의로 공동체의식, 연대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분위기에서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모의 양육방식은 가족의 심리적 변인의 하나로서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는가가, 자녀들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요람을 움직이는 자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 말은 자녀의 어린 시절 교육에 따라 아이의 장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 말이다.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에서도 어렸을 때 한번 형성된 인격이나 소질 등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1세 때까지 절대 중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3세 이전에 3개월 이상 부모와 격리된 생활에서 얻은 심리적 병리는 일생을 두고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자녀의 성격, 인성 등이 형성된다. 폭력이나 공격성은 부모 중심적이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에게서 쉽게 유발된다. 또한 부모의 체벌, 폭력이 자녀의 폭력 그리고 학교 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진다. 매를 맞고 자라면 자라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3)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심리적 좌절과 열등의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폭력 행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비행 경향은 빈곤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아직도 하류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로 중류 출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상류층의 경우 본인의 능력과 부모의 기대 사이에 격차가 클 경우 비뚤어 나가기 쉽다.

(4) 가정내 폭력

전통적으로 가정내 체벌이 용인되고 심지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도 가정사라고 하여 외부인이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매를 맞고 자란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매 맞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89.6%로 나타났다. 주로 공부나 성적 때문에 혹은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맞지만 고등학생은 ‘반항 한다’고 하여 맞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로 매나 회초리로 맞지만 ‘닥치는 대

로 맞았다'는 경우도 6.5%였다.

사회심리학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공격적이다. 그리고 아동이 폭력에 개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가장 강한 지표는 이전의 폭력 경험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의 경험도 포함된다. 그래서 폭력 학생 뒤에는 폭력 부모가 있다고 말한다. 폭력 학생은 흔히 가해자로만 인식되기 쉬우나 그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매 맞는 경험이 많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맞거나 닥치는 대로 맞을 때 강한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다시 폭력으로 표출되기 쉽다.

(5) 결손 가정

결손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구성원들이 새로운 역할 및 재적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때 피해자인 자녀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피해정도는 더 크다. 특히 친부모의 결손은 자녀들의 정서불안을 가져온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집안의 경제적 곤란, 어머니의 불안한 생활, 낮은 생활수준, 가정교육 기능 상실 등 문제가 많아지게 된다. 반대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자녀들은 경제적, 물질적인 면보다 심리적, 정서적인 면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 가정교육에 있어서 결손가정은 결손가정이라는 문제 자체보다는 결손가정의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빚어져서 자녀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결손가정은 가정역할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역할 구조상의 변화로 문제가 야기된다.

4. 선행 연구 고찰

장명신(1998)은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조사 대상 학생의 13.6%인 76명으로 나타났고,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경험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학생의 11.3%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가 35.8%를 차지했고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53.7%가 응답했다.

유홍렬(1999)은 인천, 부천지역의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6% 학생이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이 13.5%로 중학생 11.7%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교 폭력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주로 나타났고 왕따의 문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이 교우관계, 학업성취도,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영(2000)은 하영읍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교 폭력을 경험한 167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의 원인인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변인(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은 정도, 신체적 차이, 자신감 정도, 교우관계 정도)과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물질적 피해를 제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주위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신체적으로도 다른 학생과 차이를 나타내며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으며 교우관계 면에 있어서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2000)는 전주시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인 폭행, 금품갈취, 괴롭힘, 집단 따돌림의 피해 정도는 폭행(11.9%, 금품갈취(9.4%), 괴롭힘(14%), 집단 따돌림(7.3%)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 피해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가 많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중 금품갈취 피해는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안'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았고 보호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흥장'에서 피해가 많은 것을 나타냈다.

박다애(2001)의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가해 학생과 일반 학생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학교 폭력 학생과 일반 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개인적 요인에서는 공격성과 왜곡된 가치관, 가정환경 요인에서는 가정의 안정성, 부모의 폭력, 경제적 어려움이, 학교환경 요인에서는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 선생님과 관계, 학교에 대한 자부심, 성적이, 사회 환경 요인에서는 집 주위 환경, 학교 주변 환경, 폭력 매체 접촉도가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 폭력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공격성이며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가정의 안정성이며, 학교환경 요인 중에서는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학교 폭력 피해경험, 성적 등으로 나타났다.

김순석(2001)은 서울시 6개 중학교 남·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품갈취 피해가 1번 이상 있는 경우가 전체의 32%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은 13% 괴롭힘은 결손 가정이 정상 가정보다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를 당한 사실은 부모님보다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거나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경찰의 신고 전화 설치와 학교 폭력 예방 도에 대하여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결혼 가정보다는 정상 가정이 신고 전화 설치로 인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 Ⅲ-1>과 같이 제주도내 남·여, 중·고등학교(고등학교 : 일반계3, 실업계3, 중학교4) 10개교를 선정하여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 실태의 유무, 그리고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조사 하였다.

<표 Ⅲ-1> 연구 대상자

성 별		학 교 별			지 역 별	
남	여	중학교	일반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470명	375명	319명	305명	221명	423명	422명

2. 연구 도구

청소년의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진교진(1999), 안영숙(2004)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4월까지 주제를 구상하여 설정하였고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였다.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수집된 자료와 논문계획서에 따라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선행연구와 국내 대학들의 각종 행정문서를 통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를 제작하고 배포, 회수하였다. 2005년 12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1차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3월 중 수정을 거쳐 4월까지 보완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1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 배경 변인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학교별, 지역별에 따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학생들과 학교 동료(친구)의 폭력

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 -1>과 같다.

<표 IV-1>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409	368	294	280	207	385	390	777
	%	87.0	98.1	91.0	91.8	93.7	91.7	92.4	92.0
일년에 한두 번	N	26	4	17	10	3	16	14	30
	%	5.5	1.1	5.3	3.3	1.4	3.8	3.3	3.6
일년에 두세 번	N	8	1	4	4	1	5	4	9
	%	1.7	0.3	1.2	1.3	0.5	1.2	0.9	1.1
한달에 한 번	N	11	1	2	5	5	7	4	12
	%	2.3	0.3	0.6	1.6	2.3	1.7	0.9	1.4
한달에 두 번 이상	N	16	1	6	6	5	7	10	17
	%	3.4	0.3	1.9	2.0	2.3	1.7	2.4	2.0
전체	N	470	375	323	305	221	420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35.073(4) .000		9.691(8) .287			1.620(4) .805		

위의 <표 IV-1>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교의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했었다는 학생은 전체적으로 약 8.0%로 나타났으며,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92.0%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98.1%)보다는 남학생(87.0%)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년에 한두 번' 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이(5.5%) 여학생(1.1%)보다 많았다. 또한 '일년에 두세 번'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1.7%, 여학생 0.3%로 나타났 다. '한달에 한번'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2.3% 여학생 0.3%로 나타났 으며, '한달에 두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 중 남학생은 3.4%, 여학생 0.3%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 지역별 학교 안팎에서의 신체적 폭력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

나. 상처를 입은 경험

상처를 입은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의 <표 IV-12와 같다.

<표 IV-2> 상처를 입은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395	353	284	274	194	373	374	748
	%	84.0	94.1	87.9	89.8	87.8	88.8	88.6	88.5
일년에 한두 번	N	44	15	28	17	14	32	26	59
	%	9.4	4.0	8.7	5.6	6.3	7.6	6.2	7.0
일년에 두세 번	N	9	·	2	4	3	5	4	9
	%	1.9	·	0.6	1.3	1.4	1.2	0.9	1.1
한달에 한 번	N	9	4	6	2	5	7	5	13
	%	1.9	1.1	1.9	0.7	2.3	1.7	1.2	1.5
한달에 두 번 이상	N	13	3	3	8	5	3	13	16
	%	2.8	0.8	0.9	2.6	2.3	0.7	3.1	1.9
전체	N	470	375	323	305	221	420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3.401(4) .000		8.507(8) .386			7.312(4) .120		

위의 <표 IV-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약 21.5%로 나타났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88.5%로 나타났다.

다른 학생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84.0%)이 여학생(94.1%)보다 약 10.1% 더 많다고 응답하였고, ‘일년에 한두 번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9.4%)이 여학생(4.0%)보다 5.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에 두세 번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9%, 여학생은 0.0%로 나타났다. ‘한달에 한 번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9%, 여학생은 1.1%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남학생 2.8%, 여학생 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 지역별 상처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다.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험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449	373	315	297	214	407	412	822
	%	95.5	99.5	97.5	97.4	96.8	96.7	97.9	97.3
일년에 한 두 번	N	5	2	2	2	3	4	3	7
	%	1.1	0.5	0.6	0.7	1.4	1.0	0.7	0.8
일년에 두 세 번	N	1	·	·	·	1	1	·	1
	%	0.2	·	·	·	0.5	0.2	·	0.1
한달에 한 번	N	6	·	2	3	1	5	1	6
	%	1.3	·	0.6	1.0	0.5	1.2	0.2	0.7
한달에 두 번 이상	N	9	·	4	3	2	4	5	9
	%	1.9	·	1.2	1.0	0.9	1.0	1.2	1.1
전체	N	470	375	323	305	221	421	421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3.807(4) .008		4.612(8) .798			3.951(4) .413		

위의 <표 IV-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흉기로 위협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97.3%, 일년에 한두 번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0.8%로 나타났다.

흉기로 위협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중 여학생이 99.5%로 남학생 95.5%보다 많았다. '일년에 한두 번'으로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0.2% 여학생 0.0%로 나타났으며, '일년에 두세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0.2%, 여학생은 0.0%로, '한달에 한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3%, 여학생은 0.0%로, '한달에 두 번 이상'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9%, 여학생은 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학교별, 지역별 흉기위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라.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

집단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442	356	299	296	207	401	396	798
	%	93.8	94.9	92.6	97.0	93.2	95.2	93.8	94.3
일년에 한 두 번	N	15	13	16	6	6	12	15	28
	%	3.2	3.5	5.0	2.0	2.7	2.9	3.6	3.3
일년에 두 세 번	N	1	3	2	·	2	3	1	4
	%	0.2	0.8	0.6	·	0.9	0.7	0.2	0.5
한달에 한 번	N	3	·	1	·	2	2	1	3
	%	0.6	·	0.3	·	0.9	0.5	0.2	0.4
한달에 두 번 이상	N	10	3	5	3	5	3	9	13
	%	2.1	0.8	1.5	1.0	2.3	0.7	2.1	1.5
전체	N	470	375	323	305	222	421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6.369(4) 173		11.735(8) .163			4.697(4) .320		

위의 <표 IV-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94.3%로 나타났다.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중 성별이나 학교별, 지역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마. 성적 놀림을 당한 경험

성적 놀림을 당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성적 놀림을 당한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414	359	288	282	207	382	389	773
	%	88.1	95.7	89.2	92.8	93.2	91.0	92.2	91.5
일년에 한 두 번	N	23	11	15	10	9	19	14	34
	%	4.9	2.9	4.6	3.3	4.1	4.5	3.3	4.0
일년에 두 세 번	N	5	2	4	2	1	4	3	7
	%	1.1	0.5	1.2	0.7	0.5	1.0	0.7	0.8
한달에 한 번	N	8	1	6	3	·	6	3	9
	%	1.7	0.3	1.9	1.0	·	1.4	0.7	1.1
한달에 두 번 이상	N	20	2	10	7	5	9	13	22
	%	4.3	0.5	3.1	2.3	2.3	2.1	3.1	2.6
전체	N	470	375	323	304	222	420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9.168(4) .001		7.009(8) .536			2.687(4) .612		

위의 <표 IV-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적 놀림의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91.5%였다. 성적 놀림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중 남학생은 88.1% 여학생은 95.7%로 남학생이 성적 놀림의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년에 한두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4.9%, 여학생은 2.9%로, ‘일년에 두세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1%, 여학생은 0.5%로 나타났다. ‘한달에 한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7%, 여학생은 0.3%로, ‘한달에 두 번 이상’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4.3%, 여학생은 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학교별, 지역별 성적 놀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바.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425	363	294	286	212	393	392	788
	%	90.4	96.8	91.0	94.1	95.5	93.6	92.9	93.3
일년에 한두 번	N	17	10	15	6	6	16	11	27
	%	3.6	2.7	4.6	2.0	2.7	3.8	2.6	3.2
일년에 두세 번	N	7	·	4	2	1	3	4	7
	%	1.5	·	1.2	0.7	0.5	0.7	0.9	0.8
한달에 한 번	N	6	1	4	2	1	5	2	7
	%	1.3	0.3	1.2	0.7	0.5	1.2	0.5	0.8
한달에 두 번 이상	N	15	1	6	8	2	3	13	16
	%	3.2	0.3	1.9	2.6	0.9	0.7	3.1	1.9
전체	N	470	375	323	304	222	420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9.075(4).001		8.383(8) .397			8.601(4) .072		

위의 <표 IV-6>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90.4%, 여학생은 96.8%로, ‘일년에 한두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3.6%, 여학생은 2.7%로, ‘일년에 두세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5%, ‘한달에 한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3%, 여학생은 0.3%로, ‘한달에 두 번 이상’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3.2%, 여학생은 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 지역별 위협이나 협박의 경험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사. 숙제를 대신하거나 부탁을 강요당한 경험

숙제를 대신하거나 부탁을 강요당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숙제를 대신하거나 부탁을 강요당한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406	337	270	278	199	369	372	743
	%	86.8	90.1	83.9	91.4	90.5	88.1	88.6	88.2
일년에 한 두번	N	36	29	33	19	13	32	33	65
	%	7.7	7.8	10.2	6.3	5.9	7.6	7.9	7.7
일년에 두 세번	N	12	5	12	4	1	9	7	17
	%	2.6	1.3	3.7	1.3	0.5	2.1	1.7	2.0
한달에 한번	N	7	3	3	1	6	7	3	10
	%	1.5	0.8	0.9	0.3	2.7	1.7	0.7	1.2
한달에 두번이상	N	7	·	4	2	1	2	5	7
	%	1.5	·	1.2	0.7	0.5	0.5	1.2	0.8
전체	N	468	374	322	304	220	419	420	84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8.253(4) .083		21.382(8) .006			3.162(4)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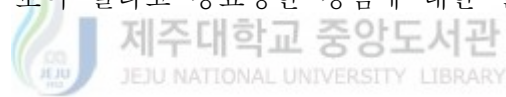
위의 <표 IV-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숙제를 대신하거나 부탁을 강요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없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83.9%, 인문계 고등학생 91.4%, 실업계 고등학생 90.5%로, ‘일년에 한두 번’으로 응답한 중학

생은 10.2%, 인문계 고등학생 6.3%, 실업계 고등학생 5.9%로, ‘일년에 두세 번’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3.7%, 인문계 고등학생 1.3%, 실업계 고등학생 0.5%로, ‘한달에 한번’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0.9%, 인문계 고등학생 0.3%, 실업계 고등학생 2.7%로, ‘한달에 두 번 이상’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1.2%, 인문계 고등학생 0.7%, 실업계 고등학생 0.5%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성별, 지역별로 볼 때 숙제를 대신하거나 부탁의 강요경험에 대한 것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아.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강요당한 경험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강요당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강요당한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433	348	298	283	203	397	381	781
	%	91.9	92.8	92.3	92.8	91.4	94.3	90.3	92.3
일년에 한두 번	N	24	21	19	15	12	14	31	45
	%	5.1	5.6	5.9	4.9	5.4	3.3	7.3	5.3
일년에 두세 번	N	8	3	3	4	4	5	6	11
	%	1.7	0.8	0.9	1.3	1.8	1.2	1.4	1.3
한달에 한 번	N	3	·	1	2	·	3	·	3
	%	0.6	·	0.3	0.7	·	0.7	·	0.4
한달에 두 번 이상	N	3	3	2	1	3	2	4	6
	%	0.6	0.8	0.6	0.3	1.4	0.5	0.9	0.7
전체	N	470	375	323	305	222	421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3.880(4) .422		4.626(8) .797			10.508(4) .033		

위의<표 IV-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강요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시 지역의 학생은 94.3%, 읍·면 지역 학생은 90.3%로, ‘일년에 한두 번’으로 응답한 시 지역의 학생은 3.3%, 읍·면 지역 학생은 7.3%로, ‘일년에 두세 번’으로 응답한 시 지역의 학생은 1.2%, 읍·면 지역 학생은 1.4%로, ‘한달에 한번’으로 응답한 시 지역 학생은 0.7%, ‘한달에 두 번 이상’으로 응답한 시 지역 학생은 0.5%, 읍·면 지역 학생은 0.9%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성별, 학교별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강요당한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자.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411	364	284	291	204	386	387	775
	%	87.3	97.3	88.2	95.4	91.9	91.9	91.7	91.7
한달에 한두 번	N	31	9	22	6	12	19	20	40
	%	6.6	2.4	6.8	2.0	5.4	4.5	4.7	4.7
한달에 두세 번	N	8	·	4	3	1	6	2	8
	%	1.7	·	1.2	1.0	0.5	1.4	0.5	0.9
일년 한 번	N	8	1	5	2	2	5	4	9
	%	1.7	0.3	1.6	0.7	0.9	1.2	0.9	1.1
일년에 두 번 이상	N	13	·	7	3	3	4	9	13
	%	2.8	·	2.2	1.0	1.4	1.0	2.1	1.5
전체	N	471	374	322	305	222	420	422	84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30.664(4) .000		12.721(8) .122			4.056(4) .398		

위의 <표 IV-9>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른 학생에게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에 대하여 ‘없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87.3%, 여학생은 97.3%로, ‘한달에 한두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6.6%, 여학생 2.4%로, ‘한달에 두세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7%, ‘일년에 한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7%, 여학생 0.3%로, ‘일년에 두 번 이상’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에 대한 학교별,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차. 돈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한 경험

돈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돈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한 경험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없다	N	302	259	209	198	157	281	280	561
	%	64.1	69.4	64.7	65.3	70.7	66.9	66.5	66.5
일년에 한두 번	N	75	68	63	49	32	72	69	143
	%	15.9	18.2	19.5	16.2	14.4	17.1	16.4	16.9
일년에 두세 번	N	41	24	22	33	10	35	30	65
	%	8.7	6.4	6.8	10.9	4.5	8.3	7.1	7.7
한달에 한 번	N	19	15	12	11	11	17	17	34
	%	4.0	4.0	3.7	3.6	5.0	4.0	4.0	4.0
한달에 두 번 이상	N	34	7	17	12	12	15	25	41
	%	7.2	1.9	5.3	4.0	5.4	3.6	5.9	4.9
전체	N	471	373	323	303	222	420	421	8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5.161(4) .004		11.740(8) .163			2.949(4) .566		

위의 <표 IV-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른 학생에게 돈을 빌려 준 뒤 돈을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64.1%, 여학생은 69.4%로, ‘일년에 한두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15.9%, 여학생은 18.2%로, ‘일년에 두세 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8.7%, 여학생 6.4%로, ‘한달에 한번’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4.0%, 여학생 4.0%로, ‘한달에 두 번 이상’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7.2%, 여학생은 1.9%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 지역별 돈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것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카. 폭력을 행사한 대상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상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상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같은 반 또는	N	71	16	31	35	21	42	44	87
다른 반 학생	%	34.0	24.2	27.9	51.5	21.6	28.2	35.5	31.6
같은 학교, 동네,	N	18	14	11	12	9	16	16	32
다른 학교 선배	%	8.6	21.2	9.9	17.6	9.3	10.7	12.9	11.6
동네 또래	N	120	36	69	21	67	91	64	156
친구	%	57.4	54.5	62.2	30.9	69.1	61.1	51.6	56.7
전체	N	209	66	111	68	97	149	124	27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8.417(2) .015		26.067(4) .000			2.481(2) .289		

위의 <표 IV-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지 묻는 응답에 남학생 34.0%, 여학생 24.2%가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학생'이라고 응답하였고, '같은 학교나 동네, 다른 학교 선배'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8.6%, 여학생은 21.2%, '동네 또래 친구'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57.4%, 여학생은 54.5%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학생'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27.9% 인문계 고등학생 51.5%, 실업계 고등학생 21.6%로, '같은 학교나 동네 다른 학교 선배'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9.9%, 인문계 고등학생은 17.6%, 실업계 고등학생은 9.3%로, '동네 또래 친구'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62.2%, 인문계 고등학생 30.9%, 실업계 고등학생 69.1%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폭력을 행사한 대상에 대한 것을 지역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타. 폭력을 행사한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 폭력을 행사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자신과 폭력을 행사한 사람과의 관계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모르는 사람이었다	N	49	16	27	9	29	36	29	65
	%	29.0	30.2	32.9	14.5	37.2	30.5	28.2	29.3
모두 아는 사람이었다	N	70	23	25	35	33	39	53	93
	%	41.4	43.4	30.5	56.5	42.3	33.1	51.5	41.9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N	50	14	30	18	16	43	21	64
	%	29.6	26.4	36.6	29.0	20.5	36.4	20.4	28.8
전체	N	169	53	82	62	78	118	103	22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198(2) .906		15.920(4) .003			9.472(2) .009		

위의 <표 IV-12>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교별로 볼 때 폭력을 행사한 사람과의 관계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32.9%, 인문계 고등학생 14.5%, 실업계 고등학생 37.2%로, ‘모두 아는 사람이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30.5%, 인문계 고등학생 56.5%, 실업계 고등학생 42.3%로,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36.6%, 인문계 고등학생 29.0%, 실업계 고등학생 20.5%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지역별로 볼 때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응답한 시 지역의 학생은 30.5%, 읍·면 지역 학생은 28.2%로, ‘모두 아는 사람이었다’고 응답한 시 지역 학생은 33.1%, 읍·면 지역 학생은 51.5%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응답한 시 지역의 학생은 36.4%, 읍·면 지역 학생은 20.4%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성별에서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의 관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다.

2.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에 학생이 취한 행동

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시 취한 행동

폭력 피해를 당했을 시 취한 행동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피해를 당할 때 취한 행동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가만히 있었다	N	51	20	30	19	23	33	38	71
	%	33.3	40.8	36.6	33.9	35.4	31.4	40.0	35.1
도망쳤다	N	22	5	11	7	9	16	10	27
	%	14.4	10.2	13.4	12.5	13.8	15.2	10.5	13.4
말로써 항의했다	N	32	6	17	13	8	21	17	38
	%	20.9	12.2	20.7	23.2	12.3	20.0	17.9	18.8
대항해서 싸웠다	N	32	13	11	14	20	22	22	45
	%	20.9	26.5	13.4	25.0	30.8	21.0	23.2	22.3
기타	N	16	5	13	3	5	13	8	21
	%	10.5	10.2	15.9	5.4	7.7	12.4	8.4	10.4
전체	N	153	49	82	56	65	105	95	20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3.086(4) .544		11.719(8) .164			2.855(4) .582		

위의 <표 IV-13>에 제시된 것과 같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는 물음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찾을 수가 없다.

나.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에 관한 설문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부모나 가족 형제	N	18	9	18	3	6	17	9	27
	%	12.3	19.1	23.7	5.6	9.4	17.0	9.9	14.0
친구	N	33	15	11	21	16	21	26	48
	%	22.6	31.9	14.5	38.9	25.0	21.0	28.6	24.9
선생님	N	12	4	3	6	7	4	12	16
	%	8.2	8.5	3.9	11.1	10.9	4.0	13.2	8.3
전문 상담 기관	N	·	1	1	·	·	·	1	1
	%	·	2.1	1.3	·	·	·	1.1	0.5
경찰	N	8	1	2	2	5	6	3	9
	%	5.5	2.1	2.6	3.7	7.8	6.0	3.3	4.7
이야기하 지 않음	N	59	14	33	17	24	39	34	73
	%	40.4	29.8	43.4	31.5	37.5	39.0	37.4	37.8
기타	N	16	3	8	5	6	13	6	19
	%	11.0	6.4	10.5	9.3	9.4	13.0	6.6	9.8
전체	N	146	47	76	54	64	100	91	19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8.206(6) .223		24.245(12) .019			11.516(6) .074		

위의 <표 IV-14>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학교별로 볼 때 ‘부모나 가족 형제에게 말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23.7%, 인문계 고등학생 5.6%, 실업계 고등학생 9.4%로, ‘친구’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4.5%, 인문계 고등학생 38.9%, 실업계 고등학생은 25.0%로,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9%, 인문계 고등학생 11.1%, 실업계 고등학생은 10.9%로 나타났다. ‘전문 상담 기관’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1.3%로, ‘경찰’이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 인문계 고등학생 3.7%, 실업계 고등학생 7.8%로,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40.4%, 인문계 고등학생 31.5%, 실업계 고등학생 37.5%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에 응답한 중학생은 10.5%, 인문계 고등학생 9.3%, 실업계 고등학생 9.4%로 나타

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 대한 성별, 지역별로는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다.

다. 학교 폭력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

폭력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N	33	5	9	13	16	22	15	38
	%	26.4	14.3	14.3	31.0	28.6	25.6	20.8	23.8
창피해서	N	14	4	9	3	6	10	8	18
	%	11.2	11.4	14.3	7.1	10.7	11.6	11.1	11.3
알려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N	28	9	15	12	10	18	18	37
	%	22.4	25.7	23.8	28.6	17.9	20.9	25.0	23.1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N	32	12	21	7	16	25	19	44
	%	25.6	34.3	33.3	16.7	28.6	29.1	26.4	27.5
기타	N	18	5	9	7	8	11	12	23
	%	14.4	14.3	14.3	16.7	14.3	12.8	16.7	14.4
전체	N	125	35	63	42	56	86	72	16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571(4) .632		8.988(8) .343			1.177(4) .882		

위와 <표 IV-15>에 제시된 것과 같이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다.

3.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가. 교사가 행한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과실 인식

교사가 행한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과실 인식은 <표 IV-16>과 같다.

<표 IV-16> 교사가 행한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과실 인식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그렇지 않다	N	59	21	32	12	37	30	50	80
	%	12.6	5.6	10.0	4.0	16.7	7.1	12.0	9.5
별로 그렇지 않다	N	65	41	39	29	38	51	54	106
	%	13.9	11.0	12.1	9.6	17.2	12.1	12.9	12.6
보통	N	156	120	95	97	86	143	132	276
	%	33.3	32.2	29.6	32.0	38.9	34.0	31.6	32.8
그런 편이다	N	138	164	112	145	46	150	152	302
	%	29.5	44.0	34.9	47.9	20.8	35.7	36.4	35.9
매우 그렇다	N	50	27	43	20	14	46	30	77
	%	10.7	7.2	13.4	6.6	6.3	11.0	7.2	9.2
전체	N	468	373	321	303	221	420	418	84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6.900(4) .000		68.036(8) .000			8.903(4) .064		

위의 <표 IV-1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은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중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2.6%, 여학생 5.6%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3.9%, 여학생 11.0%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33.3%, 여학생 32.2%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남학생은 29.5%, 여학생 44.0%로,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남학생은 10.7%, 여학생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중학생은 10.0%, 인문계 고등학생은 4.0% 실업계 고등학생은 16.7%이고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2.1%, 인문계 고등학생 9.6%, 실업계 고등학생 17.2%로, ‘보통’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29.6%, 인문계 고등학생 32.0%, 실업계 고등학생 38.9%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중학생은 34.9% 인문계 고등학생은 47.9%, 실업계 고등학생은 20.8%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3.4%, 인문계 고등학생 6.6%, 실업계 고등학생 6.3%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지역별로 볼 때 선생님이 가하는 체벌은 학생이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나.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호응도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호응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호응도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그렇지 않다	N	60	20	35	13	32	37	43	80
	%	12.9	5.4	10.9	4.3	14.5	8.8	10.3	9.5
별로 그렇지 않다	N	68	63	45	45	42	67	64	131
	%	14.6	16.9	14.1	14.9	19.1	16.0	15.3	15.6
보통	N	170	140	111	113	89	158	150	310
	%	36.5	37.5	34.7	37.3	40.5	37.7	36.0	36.9
그런 편이다	N	110	124	87	108	39	114	119	234
	%	23.6	33.2	27.2	35.6	17.7	27.2	28.5	27.9
매우 그렇다	N	58	26	42	24	18	43	41	84
	%	12.4	7.0	13.1	7.9	8.2	10.3	9.8	10.0
전체	N	466	373	320	303	220	419	417	83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6.135(4) .000		38.716(8) .000			.877(4) .928		

위의 <표 IV-17>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하는 차별이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2.9%, 여학생 5.4%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4.6%, 여학생 16.9%로, ‘보통’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36.5%, 여학생 37.5%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남학생은 23.6%, 여학생 33.2%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2.4%, 여학생 70.0%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0.9%, 인문계 고등학생 4.3%, 실업계 고등학생 14.5%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4.1%, 인문계 고등학생 14.9%, 실업계 고등학생 19.1%로, ‘보통’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34.7%, 인문계 고등학생 37.3%, 실업계 고등학생 40.5%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중학생은 27.2%, 인문계 고등학생 35.6%, 실업계 고등학생 17.7%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3.1%, 인문계 고등학생 7.9%, 실업계 고등학생 8.2%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선생님이 가하는 차별이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다.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 및 반항심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 및 반항심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 및 반항심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그렇지 않다	N	77	29	46	26	36	59	47	106
	%	16.6	7.8	14.5	8.6	16.4	14.1	11.3	12.7
별로 그렇지 않다	N	101	78	57	77	46	96	81	179
	%	21.8	21.0	17.9	25.4	21.0	22.9	19.5	21.4
보통	N	145	121	95	98	74	125	142	266
	%	31.3	32.5	29.9	32.3	33.8	29.8	34.2	31.8
그런 편이다	N	85	105	81	78	31	96	94	190
	%	18.3	28.2	25.5	25.7	14.2	22.9	22.7	22.7
매우 그렇다	N	56	39	39	24	32	43	51	95
	%	12.1	10.5	12.3	7.9	14.6	10.3	12.3	11.4
전체	N	464	372	318	303	219	419	415	8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2.148(4) .000		26.722(8) .001			4.395(4) .355		

위의 <표 IV-18>에 제시된 바와 것과 같이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으면 적대감과 반항심이 생기냐고 물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6.6%, 여학생 7.8%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21.8%, 여학생 21.0%로, ‘보통’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31.3%, 여학생 32.5%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남학생은 18.3%, 여학생 28.2%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2.1%, 여학생 10.5%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4.5%, 인문계 고

등학생 8.6%, 실업계 고등학생 16.4%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7.9%, 인문계 고등학생 25.4%, 실업계 고등학생 21.0%로, ‘보통’으로 응답한 중학생은 29.9%, 인문계 고등학생 32.3%, 실업계 고등학생 33.8%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중학생은 25.5%, 인문계 고등학생 25.7%, 실업계 고등학생 14.2%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2.3%, 인문계 고등학생 7.9%, 실업계 고등학생 14.6%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체벌을 받으면 선생님에게 적대감과 반항심이 생긴다는 것에는 지역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라.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등교 여부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등교 여부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그렇지 않다	N	153	87	117	78	48	143	97	240
	%	32.9	23.5	36.7	25.7	22.1	34.2	23.4	28.7
별로 그렇지 않다	N	119	119	88	107	44	119	116	238
	%	25.6	32.2	27.6	35.3	20.3	28.5	28.0	28.5
보통이다	N	104	93	67	66	64	83	114	197
	%	22.4	25.1	21.0	21.8	29.5	19.9	27.5	23.6
그런 편이다	N	40	39	18	34	27	33	46	79
	%	8.6	10.5	5.6	11.2	12.4	7.9	11.1	9.5
매우 그렇다	N	49	32	29	18	34	40	41	81
	%	10.5	8.6	9.1	5.9	15.7	9.6	9.9	9.7
전체	N	465	370	319	303	217	418	414	83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1.688(4) .020		46.423(8) .000			15.866(4) .003		

위의 <표 IV-1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으면 학교에 가기 싫어지냐는 물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32.9%, 여학생 23.5%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25.6%, 여학생 32.2%로, ‘보통’으로 응답한 남학생은 22.4%, 여학생 25.1%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한 남학생은 8.6%, 여학생 10.5%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0.5%, 여학생 8.6%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36.7%, 인문계 고등학생 25.7%, 실업계 고등학생 22.1%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27.6%, 인문계 고등학생 35.3%, 실업계 고등학생 20.3%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1.0%, 인문계 고등학생 21.8%, 실업계 고등학생 29.5%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5.6%, 인문계 고등학생 11.2%, 실업계 고등학생 12.4%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9.1%, 인문계 고등학생 5.9%, 실업계 고등학생 15.7%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지역별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시 지역 학생은 34.2%, 읍·면 지역 학생은 23.4%로,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시 지역 학생은 28.5%, 읍·면 지역 학생 28.0%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시 지역 학생은 19.9%, 읍·면 지역 학생은 27.5%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시 지역 학생은 7.9%, 읍·면 지역 학생 11.1%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시 지역 학생은 9.6%, 읍·면 지역 학생 9.9%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마. 교사 체벌에 대한 담당과목의 선호 여부

교사 체벌에 대한 담당과목의 선호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 교사 체벌에 대한 담당과목의 선호 여부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그렇지 않다	N	76	33	45	30	35	54	54	109
	%	16.3	8.9	14.1	9.9	16.0	12.9	13.0	13.0
별로 그렇지 않다	N	118	79	77	81	39	105	91	197
	%	25.3	21.3	24.1	26.7	17.8	25.1	21.9	23.5
보통이다	N	133	99	84	90	60	125	106	232
	%	28.5	26.7	26.3	29.7	27.4	29.9	25.5	27.7
그런 편이다	N	69	100	55	74	40	73	96	169
	%	14.8	27.0	17.2	24.4	18.3	17.5	23.1	20.2
매우 그렇다	N	70	60	58	28	45	61	69	130
	%	15.0	16.2	18.2	9.2	20.5	14.6	16.6	15.5
전체	N	466	371	319	303	219	418	416	83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5.671(4) .000		26.250(8) .001			6.180(4) .186		

위의 <표 IV-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으면 그 담당 과목이 싫어진다는 물음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6.3%, 여학생 8.9%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25.3%, 여학생 21.3%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28.5%, 여학생 26.7%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14.8%, 여학생 27.0%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5.0%, 여학생 16.2%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4.1%, 인문계 고등학생 9.9%, 실업계 고등학생 16.0%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

은 24.1%, 인문계 고등학생 26.7%, 실업계 고등학생 17.8%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3%, 인문계 고등학생 29.7%, 실업계 고등학생 27.4%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7.2%, 인문계 고등학생 24.4%, 실업계 고등학생 18.3%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8.2%, 인문계 고등학생 9.2%, 실업계 고등학생 20.5%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체벌을 받으면 담당 과목이 싫어진다는 것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볼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바. 교사 체벌이외의 대체 수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교사 체벌이외의 대체 수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교사 체벌이외의 대체 수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그렇지 않다	N	36	8	20	7	17	14	29	44
	%	7.8	2.2	6.3	2.3	7.8	3.3	7.0	5.3
별로 그렇지 않다	N	16	14	12	11	7	14	16	30
	%	3.4	3.8	3.8	3.6	3.2	3.3	3.9	3.6
보통이다	N	124	95	83	75	63	112	105	219
	%	26.7	25.5	25.9	24.8	29.0	26.8	25.3	26.2
그런 편이다	N	112	139	88	114	49	137	113	251
	%	24.1	37.4	27.5	37.6	22.6	32.8	27.2	30.0
매우 그렇다	N	176	116	117	96	81	141	152	292
	%	37.9	31.2	36.6	31.7	37.3	33.7	36.6	34.9
전체	N	464	372	320	303	217	418	415	8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7.230(4) .000		21.456(8) .006			8.298(4) .081		

위의 <표 IV-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잘못해도 선생님께서 좋은 말로 타일러 주셨으면 한다는 물음에 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7.8%, 여학생 2.2%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3.4%, 여학생 3.8%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26.7%, 여학생 25.5%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24.1% 여학생 25.5%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24.1%, 여학생 37.4%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37.9%, 여학생 31.2%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6.3%, 인문계 고등학생 2.3%, 실업계 고등학생 7.8%,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3.8%, 인문계 고등학생 3.6%, 실업계 고등학생 3.2%,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5.9%, 인문계 고등학생 24.8%, 실업계 고등학생 29.0%로, ‘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27.5%, 인문계 고등학생 37.6%, 실업계 고등학생 22.6%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36.6%, 인문계 고등학생 31.7%, 실업계 고등학생 37.3%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좋은 말로 타일러 주셨으면 한다 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볼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사.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에 관한 설문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그렇지 않다	N	83	41	51	36	38	60	62	124
	%	17.8	11.0	15.9	11.9	17.4	14.3	14.9	14.8
별로 그렇지 않다	N	68	84	62	69	22	79	73	152
	%	14.6	22.5	19.4	22.8	10.0	18.9	17.5	18.1
보통이다	N	130	115	89	91	65	121	123	245
	%	28.0	30.8	27.8	30.0	29.7	28.9	29.6	29.2
그런 편이다	N	85	77	55	62	45	79	82	162
	%	18.3	20.6	17.2	20.5	20.5	18.9	19.7	19.3
매우 그렇다	N	99	56	63	45	49	80	76	155
	%	21.3	15.0	19.7	14.9	22.4	19.1	18.3	18.5
전체	N	465	373	320	303	219	419	416	83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9.285(4) .001		20.307(8) .009			.434(4) .980		

위의 <표 IV-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말썽을 자주 일으키고 수업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말로 타일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7.8%, 여학생 11.0%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4.6%, 여학생 22.5%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28.0%, 여학생 30.8%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18.3%, 여학생 20.6%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21.3%, 여학생 15.0%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5.9%, 인문계 고등학생 11.9%, 실업계 고등학생은 17.4%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9.4%, 인문계 고등학생 22.8%, 실업계 고등학생 10.0%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7.8%, 인문계 고등학생 30.0%, 실업계 고등학생

29.7%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7.2%, 인문계 고등학생 20.5%로, 실업계 고등학생 20.5%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9.7%, 인문계 고등학생 14.9%, 실업계 고등학생 22.4%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말썽을 자주 일으키고 수업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친구에게 좋은 말로 타일러 주셨으면 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지역별로는 유의미성을 설명할 수 없다.

아.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관한 설문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그렇지 않다	N	135	85	106	73	42	117	101	220
	%	29.1	22.8	33.0	24.2	19.3	27.9	24.3	26.3
별로 그렇지 않다	N	147	140	105	132	51	143	143	287
	%	31.7	37.5	32.7	43.7	23.4	34.1	34.5	34.3
보통이다	N	112	95	60	68	80	99	108	207
	%	24.1	25.5	18.7	22.5	36.7	23.6	26.0	24.7
그런 편이다	N	27	31	20	23	15	29	29	58
	%	5.8	8.3	6.2	7.6	6.9	6.9	7.0	6.9
매우 그렇다	N	43	22	30	6	30	31	34	65
	%	9.3	5.9	9.3	2.0	13.8	7.4	8.2	7.8
전체	N	464	373	321	302	218	419	415	83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0.218(4) .037		67.997(8) .000			1.685(4) .793		

위의 <표 IV-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생님이 행사하는 체벌이 어떤 경우든 폭력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

은 29.1%, 여학생 22.8%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31.7%, 여학생 37.5%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24.1%, 여학생 25.5%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5.8%, 여학생 8.3%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9.3%, 여학생 5.9%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33.0%, 인문계 고등학생 24.2%, 실업계 고등학생 19.3%로,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32.7%, 인문계 고등학생 43.7%, 실업계 고등학생 23.4%로, ‘보통이다’로 응답한 중학생은 18.7%, 인문계 고등학생 22.5%, 실업계 고등학생 36.7%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6.2%, 인문계 고등학생 7.6%, 실업계고등학생 6.9%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9.3%, 인문계 고등학생 2.0%, 실업계 고등학생 13.8%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선생님의 체벌은 어떤 경우든 폭력이라 생각한다 에 대한 지역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자.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수용 여부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수용 여부에 관한 설문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수용 여부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선생님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N	97	57	55	44	56	81	73	154
	%	21.4	15.9	17.9	14.9	26.5	19.6	18.4	19.0
선생님은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N	99	58	52	73	32	89	66	157
	%	21.9	16.2	16.9	24.7	15.2	21.5	16.7	19.3
모르겠다	N	256	243	200	179	122	243	255	499
	%	56.5	67.7	64.9	60.5	57.8	58.8	64.4	61.5
전체	N	453	359	308	296	211	413	396	81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2.724(4) .013		22.019(8) .005			5.763(4) .218		

위의 <표 IV-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 ‘선생님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21.4%, 여학생은 15.9%로, ‘선생님은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21.9%, 여학생은 16.2%로, ‘모르겠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56.5%, 여학생 67.7%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오차범위 1%범위 이내에서 유효하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선생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6.9%, 인문계 고등학생은 14.9%, 실업계 고등학생 26.5%로, ‘선생님은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6.9%, 인문계 고등학생은 24.7%, 실업계 고등학생 15.2%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선생님도 체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볼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차.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처신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처신에 관한 설문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 교사 체벌에 대한 학생의 처신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	N	39	23	27	11	25	34	29	62
	%	8.7	6.5	8.8	3.9	11.6	8.3	7.4	7.7
인터넷에 글 을 올리겠다	N	41	26	24	17	26	34	33	67
	%	9.1	7.3	7.8	6.0	12.1	8.3	8.5	8.3
선생님께 항 의 하겠다	N	82	93	61	62	52	82	92	175
	%	18.3	26.3	19.9	21.8	24.2	20.0	23.6	21.8
달게 받겠다	N	287	212	195	195	112	260	236	499
	%	63.9	59.9	63.5	68.4	52.1	63.4	60.5	62.1
전체	N	449	354	307	285	215	410	390	80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8.329(3) .040		22.253(6) .001			1.649(3) .648		

위의 <표 IV-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한다면 학생의 처신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응답한 남학생은 8.7%, 여학생 6.5%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고 응답한 남학생은 9.1%, 여학생 7.3%로, ‘선생님께 항의 하겠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8.3%, 여학생 26.3%로, ‘달게 받겠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63.9%, 여학생 59.9%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응답한 중학생은 8.8%, 인문계 고등학생 3.9%, 실업계 고등학생 11.6%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7.8%, 인문계 고등학생 6.0%, 실업계 고등학생은 12.1%로, ‘선생님께 항의 하겠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9.9%, 인문계 고등학생 21.8%, 실업계 고등학생 24.2%로, ‘달게 받겠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63.5%, 인문계 고등학생

68.4%, 실업계 고등학생 52.1%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학생의 처신에 대한 것은 통계적으로 지역별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4. 제주도내 학교 폭력의 현황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제주도 학교 폭력 문제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6>과 같다.

<표 IV-26> 제주도 학교 폭력 문제의 정도

		성별		학교별			지역별		전체
		남	여	중학교	인문계고	실업계고	시	읍·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	N	33	15	22	11	15	20	28	48
	%	7.1	4.0	6.9	3.6	6.9	4.8	6.8	5.7
심각하지 않다	N	79	75	65	50	40	81	73	154
	%	17.1	20.1	20.4	16.4	18.3	19.3	17.7	18.4
보통이다	N	237	206	163	171	111	225	217	443
	%	51.3	55.1	51.3	56.3	50.9	53.6	52.5	53.0
심각하다	N	70	62	47	59	27	68	63	132
	%	15.2	16.6	14.8	19.4	12.4	16.2	15.3	15.8
매우 심각하다	N	43	16	21	13	25	26	32	59
	%	9.3	4.3	6.6	4.3	11.5	6.2	7.7	7.1
전체	N	462	374	318	304	218	420	413	83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2.742(4) .013		19.764(8) .011			2.647(4) .619		

위의 <표 IV-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제주도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정도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7.1%, 여학생 4.0%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7.1%, 여학생 20.1%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51.3%, 여학생은 55.1%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5.2%, 여학생은 16.6%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9.3%, 여학생은 4.3%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학교별로 볼 때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6.9% 인문계 고등학교 3.6%, 실업계 고등학교는 6.9%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20.4%, 인문계 고등학생 16.4%, 실업계 고등학생 18.3%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51.3%, 인문계 고등학생 56.3%, 실업계 고등학생 50.9%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4.8%, 인문계 고등학생 19.4%, 실업계 고등학생 12.4%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6.6%, 인문계 고등학생 4.3%, 실업계 고등학생 6.2%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차이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제주도 학교 폭력 문제의 정도에 대해서 지역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내의 학생들의 학교 폭력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학교 폭력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및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 및 북제주군 지역 2학년 남, 여 학생 845명(남 470명, 여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 1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폭력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학생들 간에 싸움을 하거나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러한 폭력은 그동안 교내 문제로 학사적 차원에서 수습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변화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으로 인하여 학교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 중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 폭력의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학교가기를 두려워하는 학생,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살에 이른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이 학교

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되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발생한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예방과 대비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연구하게 되었으며,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소수의 학생들 중 폭행을 경험한 경우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시 지역 보다는 읍·면 지역 학생이, 일반계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이 많음을 보여준다. 선생님이 가하는 처벌에 관하여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주도의 학교 폭력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 다행히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학교 폭력의 발생 빈도나 모든 면에서 아직까지는 청정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학교 안팎에서의 학교 폭력에 대한 빈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았다.

둘째, 상처의 경험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았다.

셋째, 흉기 위협의 경험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나 그 인원이 적었다.

넷째, 성적 놀림의 경우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많았다.

다섯째, 위협이나 협박의 경우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여섯째, 숙제를 대신하거나 강요받은 경험은 중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시 지역의

학생들 보다는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았다.

여덟째, 돈이나 귀중품을 뺏긴 경험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빼앗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적었다.

아홉째, 돈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했다는 학생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다.

열 번째, 폭력을 행사한 대상에 대해서는 남·여학생 모두 동네 또래 친구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역시 모두 동네 또래 친구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는 같은 반 친구 또는 다른 반 친구라는 학생이 가장 많다.

열한 번째, 폭력을 행사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읍·면 지역 또한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중학교와 시 지역의 학생들은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학생이 가장 많이 있었다.

열두 번째, 피해를 당한 후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열세 번째, 선생님이 가하는 체벌은 학생이 잘못된 것에 대한 여학생의 태도는 그런 편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고 남학생은 보통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과 인문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그런 편이라는 학생이 제일 많았으며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보통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열네 번째, 선생님이 가하는 체벌은 학생들을 모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열다섯 번째, 체벌을 받으면 선생님에게 적대감과 반항심이 생긴다는 물음

에 관해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모두 보통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열여섯 번째, 체벌을 받으면 학교가기가 싫어진다는 학생들 중 남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시 지역의 학생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읍·면 지역의 학생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많았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보통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열일곱 번째, 체벌을 받으면 담당과목이 싫어진다는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과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보통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편이라는 학생들이 많았다.

열여덟 번째, 말썽을 자주 일으키고 수업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친구에게 좋은 말로 타일러 주셨으면 한다는 학생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열아홉 번째, 선생님의 체벌은 어떤 경우든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학생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학생,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경우는 보통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스무 번째,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선생님도 체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모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스물한 번째, 선생님이 자신에게 체벌을 하면 학생들의 처신으로는 달게 받겠다는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모두 달게 받겠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스물두 번째, 제주도 학교 폭력 문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모두 보통이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2. 결론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 폭력 경험을 한 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다.

둘째, 선생님이 가하는 체벌에 대해선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이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인식이 많다.

셋째, 제주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선 아직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넷째, 학생들은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서라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범시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 경찰, 지역사회의 학교 폭력 신고센터 마련 등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문제는 어른들의 시각과 판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이들의 시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지름길임을 증명하고 있다.

위의 결론에서 나타나듯이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학교 폭력에 관한 한 청정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헐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청정 지역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 사회, 교사, 학부모,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1996).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 한국청
소년교육연구소 자료집 96-1.
- 김갑제(1995). **학교내의 폭력 근절 방안**. 학교내외 폭력 근절을 위한 세
미나 자료집.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 김동인(1996). **교육환경과 학교 폭력**. 수사연구, 수사연구사.
- 김경안(1996).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
국 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과 석사학위논문.
- 김수철(1995). **학교폭력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학교
내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 김순석(2001).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김형일(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
학 위 논문.
- 나선숙(1997). **학교폭력실태 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단 올베우스(1996, 이동진 옮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서울 : 삼신
각
- 문정선(1997).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기민(2000).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2000).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숙(2004).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감소 기대요인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록(2003).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렬(2003).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형만(2001). **경찰력 행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영원(1997). **학원 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 광금주(1991). **대중 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진(1991). '2020년 . 청소년의 병리 -폭력-'. 2020년 우리 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움 자료.
- 이경자(1998). **학교폭력의 실태 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주(2002). **학교폭력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를 중심으로**, 호남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돈희(1996). **학교폭력 : 현실과 대책**.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자료집 96-1.
- 이명자(2004).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복(1997).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 장재식(199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경(1998).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교진(1999). **학교 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제 11회 특수 상담 사례연구 자료집.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 한울림.
- 치안연구소(1996).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 최윤진, 구창모, 정문성(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최종욱(1991). **‘학생폭력의 원인’, 학생폭력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서울 특별시 교육 연구원.
- 홍재선(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 Hall
- Berkowitz. L.(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 165~176.
- Gelles. R. J. and M. A. Straus(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n. R. Hill. F. I. Nye and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 Y. Free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Violence in
Schools

Lee, Byung Ho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violence in school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solve the proble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used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d made a questionnaire based on prior researches and advices from the academic advisor. For the study, the researcher selected 10 high schools and randomly selected 900 students at the school.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he students and 84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used in the study,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for Window program.

Findings suggest that male students have experienced much more physical violence than female students inside and outside schools.

Second, students usually think that physical punishments from teachers are resulted from their misbehaviors.

Third, students think that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n Jeju is not severe.

Fourth, students want to prevent violence in schools through legal or institutional restrictions, and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dealt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not from the thought and judgement of adults.

Finally,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n Jeju is not serious, but schools, community,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should do their best and cooperate to sustain the image of the violence-free city.



<부 록>

『학교 폭력의 실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에 관한 설문지

부탁의 말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학교 폭력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학교 폭력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고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설문 결과는 집단으로 통계 처리될 것이므로 성명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이병훈

일반적 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교 ① 중학교() ② 인문계고등학교() ③ 실업계고등학교()
- 3 학교 소재지 ① 시 지역() ② 읍·면 지역()

※ 다음은 여러분과 학교동료(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폭력 경험에 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구 분	없다	일년에 한두 번	일년에 두세 번	한달 한번	한달 두 번 이상
4. 나는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맞아 몸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성적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받은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학생의 숙제를 대신하거나 부탁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시험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강요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학생에게 돈이나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긴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한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여러분에게 폭력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① 같은 반 학생() ② 다른 반 학생() ③ 같은 학교 선배()
④ 동네 선배() ⑤ 다른 학교 선배() ⑥ 동네 또래 친구()
⑦ 모른다() ⑧ 기타()

15. 여러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평소 여러분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 ① 모르는 사람이었다() ② 모두 아는 사람이었다()
③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 다음은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에 학생이 취한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여러분은 피해를 당할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 ① 가만히 있었다.() ② 도망쳤다.() ③ 말로써 항의했다.()
④ 대항해서 싸웠다.() ⑤ 친구나 선배에게 연락해서 함께 싸웠다.()

17. 여러분은 피해를 당한 후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 ① 부모나 가족형제() ② 친구() ③ 선생님()
④ 전문 상담 기관() ⑤ 경찰()
⑥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음() ⑦ 기타()

18.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② 창피해서()
③ 알려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④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⑤ 기타()

※ 다음은 여러분과 선생님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 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9.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은 학생이 잘못 했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께서 체벌을 받으면 나는 선생님께서 적대감과 반항심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22. 선생님께서 체벌을 받으면 나는 학교에 가기 싫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선생님께서 체벌을 받으면 나는 그 선생님 담당 과목이 싫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잘못해도 선생님께서 좋은 말로 타일러 주셨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5. 말썽을 자주 일으키고 수업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친구에게도 좋은 말로 타일러 주셨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6. 선생님이 행하시는 체벌은 어떤 경우든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체벌을 하시면?

- ① 선생님도 반드시 체벌을 받아야 한다.()
- ② 선생님은 체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③ 모르겠다.()

28.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체벌을 하신다면?

- ① 경찰에 신고하겠다.() ②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 ③ 선생님께 항의 하겠다.() ④ 달게 받겠다.()

※ 다음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9. 현재 제주도의 학교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 ⑤ 매우 심각하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료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